

내가 준비하는 나의 마지막 웰엔딩(Well-Ending)을 위한 장례문화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의 현재 혹은 미래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죽음은 곧 삶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소중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는 '웰엔딩'이 필요하다.

글. 편집부 자료출처. BRABO my life



주목받는 이색 장례문화

① 퇴비화장례

친환경 장묘법 중 하나로 퇴비화장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리컴포즈는 시신을 흙 속에서 급속히 부패시켜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퇴비화장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과 묘지가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② 드라이브루 장례

미국의 장례식은 보통 친지들이 관에 담긴 망자를 찾아 조문하고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LA의 애덤스장례식장은 드라이브루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조문객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문을 한다.

③ 바다해양장

수목장과 더불어 바다 해양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다른 장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GPS 좌표를 기록하기 때문에 바다 성묘도 가능하다.

④ 우주장례

미국에서는 우주선에 시신을 화장한 재를 함께 실어 쏘아 올려주는 서비스를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때마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와 같은 상업용 우주 사업이 확장하면서 최근엔 연간 2~3회가량 우주선 발사에 재를 실어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장례식'이 아닌, '장례문화'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유족에게 과한 짐을 지게 하는 각종 의식이나 형식이 주가 되어 정작 고인을 위한 애도나 추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장례식은 보다 간소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2일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엔 1·2일장이나 무빈소 장례와 같이 규모와 기간이 줄어든 장례를 선호한다. 천편일률적인 장례가 아닌, 가족 중심의 작은 장례로 변하면서 유족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고인을 중심으로 한 깊은 추모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시대가 바뀌면서 장묘문화도 바뀌고 장례의 규모나 일정, 조문 방식 등 여러 가지가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장례문화의 본질은 그대로다.

새로운 장례문화 트렌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생전 장례식'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장례식에 본인이 참석해 손님을 맞이하고 그간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다. 장례식은 보통 사후에 진행되다 보니 고인의 뜻과 마음을 미처 전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생전에 관계를 맺었던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보는 것이다. 살아 있을 때 하는 자신의 장례식인 셈이다. 생전 장례식에서는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즐겁게 어울리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다. 슬프거나 비통한 죽음이 아닌,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의미가 강하다. 결혼식처럼 장례식 식순도 짜보고, 초청할 사람도 미리 정해 보고, 신세 진 분에게는 살아 있을 때 만나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 화장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목장'이다. 이는 높아지는 화장률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화장한 뒤 뿔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이다. 영국에서는 자연장(Natural Burials)이라고 부른다. 수목장용 나무를 영생목(永生木)이라고 하며 주로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사용된다. 🌳

